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수기집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 수기집 발간에 즈음하여

‘혼례[婚禮]’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혼례문화는 여전히 흥청망청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관행으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YWCA는 1950년대부터 가족법 등 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70년대에 ‘바른결혼 문화 정착 위한 실천대회’ 등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가정의례 전반을 개선하려는 우리사회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응과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YWCA는 2012년 여성가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업을 수행하여 이 사회에 만연한 고비용 외형위주의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사례와 경험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가정 양립 지향 및 허례허식을 타파한 결혼 사례를 대상으로 수기공모를 진행, 수상작 6편을 포함한 약 20여편의 사례가 수록된 수기집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는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허례허식 타파를 위한 아름다운 결혼 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신 많은 응모자들이 함께 만든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수기집 발간이 혼례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과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혼례문화 개선을 이루는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012.11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 경 애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수상작

대 상 진짜 우리 결혼식 / 박성희... 3

우수상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 강지영 ... 8

작은 '우연'이 모여 '인연'을 만들다 / 박수열 ... 14

장려상 살림은 중고, 사랑은 명품 / 박수임 ... 20

너와 나는 똑같아! / 주선경 ... 26

사치가 아닌 가치의 결혼식 / 현 정 ... 31



참가작

1. 눈물의 결혼식 / 강은애 ... 39
2. 이불숨을 틀면서... / 구정혜 ... 45
3. 결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 김미숙 ... 51
4. 메마른 땅에 핀 사랑 꽃 / 김정음자 ... 56
5. 미련한 선택 / 김진숙 ... 62
6. 결혼을 꿈꾼다 / 박현주 ... 67
7. 격식타파,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착한 결혼” / 윤소영 ... 72
8. 21번째 결혼 / 이은비 ... 75
9. 착한 결혼식 / 이인희 ... 78
10. 마흔 넘은 내가 꿈꾸는 결혼 / 장미자 ... 84
11. 장애인 시부모님을 맞은 누구집 귀한 딸 / 장은주 ... 89
12. 허례허식을 없애는 결혼!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요! / 장현숙 ... 94
13. 로또를 산다 / 전예중 ... 98
14. 결혼은? 결정! 혼자서도 잘해요 / 최정근 ... 102



수상작

대 상 진짜 우리 결혼식 / 박성희

우수상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 강지영

작은 '우연'이 모여 '인연'을 만들다 / 박수열

장려상 살림은 중고, 사랑은 명품 / 박수임

너와 나는 똑같아! / 주선경

사치가 아닌 가치의 결혼식 / 현 정

(대상)

진짜 우리 결혼식

박성희

‘결혼식 말고 결혼’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잘 치러낸 우리 부부는 지금 행복하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결혼식’은 정말 필요하다.

햇수로 8년 연애동안 ‘제대로 된 결혼식’이 아니면 차라리 결혼식을 하지 않겠노라 했었다. 삼년쯤 전부터는 열심히 고민하고 나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음에도, 평등결혼식은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함께 하객 맞이하기, 동시입장, 주례 없는 결혼식 등을 하자니 예식장에서 알아서 해주는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직접 준비해야 했고, 적당한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다.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9개월 차 새 가족까지 생긴 지금도 웨딩 사진에 적힌 혼인서약서를 보며 “우리 결혼식 진짜 멋있었지” 하고 웃을 수 있으니 노력한 보람은 정말 곱으로 있다.

결혼 준비는 서로 그동안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두고 꼭 필요한 지출만 하기로 했다. 다행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놓은 돈은 비슷했고, 아껴 쓰면 빠듯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어보였다.

예산에 맞는 신혼집은 꿈꿔왔던 신혼집과는 거리가 삼만

리즘 멀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지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이틀을 꼬박 풀이 죽어있었다. 그러나 바로 힘내 마트 용 자재와 페인트로 아마추어 인테리어 공사로 신혼집다운 신혼집을 꾸몄고 그곳에서 2년을 방앗간 저리가랄 만큼 깨소금 볶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더 바랄 것은 없다.

결혼반지는 다이아로 꼭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씀은 아직은 안목이 없어 큐빅과 다이아를 구별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간소한 커플링으로 마무리했다.

예단이니 혼수니 하는 것들을 모두 생략하니 양가 어른신과 우리 부부 모두 신경전이니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것 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믿고 맡겨주신 배려에 대한 감사만으로 예식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호텔 예식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여유 있게 하객들과 즐기기 위한 예식을 위해 예식홀 대신 큰 식당을 대여했고, 길고 화려한 베일 대신 간소한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식당 입구에서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신 손님들께 함께 인사를 드렸다.

신랑과 나란히 입장해서 마주서서 며칠 밤을 새워 쓴 혼인서약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에게 읽어주었고, 양가 어머님께 좋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 퇴장할 때 하객들이 날려준 덕담을 적은 종이학은 화려한 폭죽보다 더 로맨틱했고, 그 덕담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두고두고 읽으며 추억을 되짚게 해주었다.

혼수와 예물을 간략히 했다고 우리 결혼식이 아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마술사와 트럼펫 연주자를 초대해 두 시간 가까운 결혼식을 즐거운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두 시간 정도를 하객들은 천천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셨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마술 덕분에 아이들도 즐거운 주말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고 칭찬도 들었다.

화려한 예식홀을 포기한 대신 넉넉히 먹고 즐길 수 있는 잔치다운 잔치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따르며 어찌 고저찌고 하는 고릿적 주례사 대신 사랑과 존중이 담긴 예쁜 글을 서로에게 선물했다.

♥ 신부의 글

처음 해맑은 미소에 끌렸고
변함없는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결같은 배려에 익숙해져버렸습니다.

8년이란 시간동안 늘 내 생각보다 좋은 사람임을 보여준 당신이기에
가능할 수 없는 긴 시간 함께할 용기를 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동안 내가 당신에게 줄 사랑만
열심히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줄 사랑은 늘 내 생각보다 좋은 것일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 얼굴에 내 손에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을 때쯤엔

서로가 서로에게 준 지혜와 사랑으로 더 큰 사랑 나누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사랑함으로 주변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여물게 만드는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랑의 글

새로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밝고 힘찬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곁을 맴돌았고 그런 나를 그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맴돌다가,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랑과 행복을 성희와 나누고 싶습니다.
늘 성희가 행복한 것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성희가 맛난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8760시간 동안 성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글 ♥

봄처럼 따뜻하게,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가을처럼 넉넉하게,

겨울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직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은 쌀렁한 신혼집에서 나란히 엮드려 혼인서약서를 백번쯤 고쳐 썼었다. 연애기간이 길어서 설렘은 옛날일이 되어버렸을 시기에 결혼식을 준비했었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연애 초기에 주고받은 메일도 다시 읽고 우리 처음 만난 추억도 더듬어 보았었다.

혼인서약서를 쓰면서 지나온 8년,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먼 미래까지 찬찬히 더듬다 보니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오랫동안 함께 할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절로 났다. 연습하느라 여러 번 읽으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눈빛과 설렘은 지금도 생생하다. 저 글만 보면 우리 설레던 그 시절이 생각나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제대로 된 결혼식’이라는 큰일을 다투지 않고 사랑을 꼭꼭 담아 잘 치룬 경험은 우리 두 사람을 굳건한 진짜 부부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추억 덕분에 지금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

(우수상)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강지영

“나 지금 통장에 200만원밖에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하지?”

어느 날, 남자친구는 몸살이 나서 끙끙거리고 있던 저를 굳이 불러내어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멋진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꽃다발과 목걸이를 꺼내며 조심스레 청혼을 했죠. 자기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준비한 일인 것 같아 내심 고맙고 기뻐했는데, 제가 흔쾌히 결혼에 동의하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수중에 200만원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취업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돈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학 선후배로 만나 6년을 연애했으며 20대의 방향과 추억과 꿈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가 얼마를 가졌든 함께 잘 살아낼 자신도 있었기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랑보다 3년 먼저 취업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는데,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시작한다'는 기본원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정말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둘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원칙에서 마음이 착! 맞으니 작은 것들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들은 '너희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저희 생각에 적극 동의해 주셨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니 비용을 줄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결혼 예식비부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은 일반 예식장보다 저렴한 동문회관에서 하기로 했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던 비용이 우수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대여비가 50만원이었는데, 식당 내부에 조화 장식비용은 기본적으로 60만원이 추가되고 생화로 바꾸면 약 200만원을 더 내야했고, 케이크 커팅식을 하면 50만원이 추가되고, 입구에 전자안내판을 설치하면 20만원이 또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저렴하게 생각됐던 결혼식장 대여비용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조화라고 비웃지는 않을까, 전자안내판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케이크 커팅식을 해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눈 딱 감고 다 해야 하는 것인지 망설여졌습니다.

신랑과 저는 일단 예약을 미루고 예식장을 나와 함께 현

재 가진 돈과 결혼식 날까지 우리가 추가로 모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지출이 예상되는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부터 써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은 불가피했고, 알아보니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돈이 2천~3천 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도 가구, 전자제품 등 필수 살림살이 구입비용, 예식비용, 청첩장 등 각종 인사비용, 신혼 여행비용, 예단비용, 청첩장 비용 등등. 각종 비용을 주욱 적어보니 우리가 가진 돈은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일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마음에 각 항목에 숫자를 매겼습니다.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가구도 싹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1주일 정도 고민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할 것과 안 해도 될 것!

일단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어차피 이불이 없어서 잠 못 자는 것 아니고, 숟가락이 없어서 밥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다 생략해도 된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장은 가장 기본적인 셋팅만 하고 아무런 추가도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단, 저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같이 결혼식 진행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어머님 두 분만 예식 입장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 아버님들도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저희의 결혼식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손잡고 입장하고, 아버지 두 분이 손잡고 입장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모두들 아버님 두 분이 입장할 때 신기해하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례비도 아꼈습니다. 보통 특별한 분께 주례를 부탁하면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께 부탁하면 10만 원~20만 원이 소요됩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저희 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례 대신 부모님들이 각자 살아보니 어떻더라, 하는 생생한 조언을 들려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된 것처럼 신나하셨습니다. 당일,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에게 우리 딸을 많이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신 제 친정아버님의 진정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시아버님은 살아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즉석에서 배드민턴채 증정식을 진행하셔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 내내 신랑, 신부인 저희가 하객 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축의금만 내고 얼른 식사하러 가시는 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빠져나가기 어려우셨겠죠? 그래서인지 하객이 꼭

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화의 향기와 비싼 장식, 케익 컷팅식은 없었지만 모두의 웃음과 감동으로 결혼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살림살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저희는 신혼집의 모든 가구를 총 240만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구, 알뜰게 말하면 싸구려 가구로 채웠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침대, 장롱, 화장대, 옷장, 책장, 책상, 식탁 등 모든 가구를 다 합한 돈이 약 240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보니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결혼 후, 2개월만에 첫째아이를 임신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두 돌이 다되어 갑니다. 다 아시겠지만 두 돌 즈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그림그리기,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온 집안과 가구의 구석구석이 아이의 그림으로 가득 차있는데 저희 부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가 모두 하얀 색이라서 도화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이 가구는 아이가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지 않을 정도로 자라는 그날까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좀 지났는데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한 빚을 다 갚고 자산이 좀 쌓였습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구도 하나씩 좋은 것으로 바꾸자며 함

께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시작하니, 우리 가정도 순수하게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것 같지 않나요?

(우수상)

작은 ‘우연’이 모여 ‘인연’을 만든다

박수열

♥ 첫 번째 우연 : 만남

「사는 곳이나 나이, 직업 등은 그리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준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한 가지 꼭 바라는 게 있다면...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절 좋게 보셨다면 부담없이 편하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위의 글은 작년 3월, 한 사이트의 펜팔 코너에 ‘찬란한 3월’이란 제목으로 올린 제 글의 일부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까칠한 33살의 부산 남자. 이 남자,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은 씩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을 친구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memories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에게서 답신이 왔고, 일주일 만에 한두 번 정도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린 서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들기며 ‘감정의 송수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대구 관광 투어를 핑계로 우리는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대구가 첫 방문인 제가 두리번거리며 동대구역사를 헤매고 다니던 중 “와, 키가 크시네요.”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건네던 그 사람이 바로 2012년 9월 15일 결혼을 앞둔 제 아내 정은영입니다.

♥ 두 번째 우연 : 결혼스토리

제 아내는 저보다 한 살 많은 고령 출신의 대구 아가씨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닭살 애교로 사랑을 한없이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고 정의내리며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12년 가까이 같은 곳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사회 경험도 많이 쌓았고, 스스로를 성실하고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름 직장에서 인정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는 부산남자를 만나 일을 그만두고 신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현실이 결혼의 문턱에선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직장에 따라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저는 제 아내의 일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대구를 떠나 남편 따라 부산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아내의 일을 인정해주셨고, 지금은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던 제게 대구지점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원장의 추천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점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서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넘치지 않게, 성실하게 결혼준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네가 생각하는 돈과 시간과 노력의 2배가 들것이다”라고. 처음엔 ‘결혼하는 친구 겁주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를 하려고 보니 사실이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결혼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를 맞추기는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정성으로 키워준 것만으로 감사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대거나, 손 벌리지 말고 우리가 저축한 돈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발품을 팔아 우리의 보금자리를 될 작은 집(18평)을 계약하고, 모자란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기특하게 보신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도 예단, 예물, 이바지, 함이라는 절차를 물질로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간소하게 마음으로 정성을 주고받기로 하였고 현명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뿌듯해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결혼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주변 친구들이 우리의 보금자리에 필요한 작은 선물 하나하나로 집안의 가구며, 가전제품,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모자란 만큼 꼭 누군가가 채워주고, 주변의 있는 사람들을 챙길 수 있게 된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소중함과 주변사람들의 감사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심한 것처럼 넘치지 않게, 모자라면 누군가가 채워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주눅이 들 수밖에 상황에서도, 나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 펴라! 무엇을 잘못했냐?”고 “많이 가지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물론 있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내하고, 함께 한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결혼준비는 힘들게 풀어야하는 숙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 세 번째 우연 :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식!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떠올려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지루한 주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지만 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결혼식 진행에는 관심을 두는 이가 참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 하객 따로, 결혼식 진행 따로, 지루한 주례사를 탈피한 의미 있는 결혼식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주례가 없는 예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신부가 하객을 바라보며 직접 써온 사랑의 서약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직접 성혼선언문을 낭독하고, 하객들과 함께하는 예식이벤트와 지인들이 직접 준비해준 축하까지, 축제분위기 연출로 신랑신부뿐만 아니라 하객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하는 의미 있는 결혼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린 서로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내가 ‘펜팔하자’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때 글을 당신이 읽지 않았다면, 우리가 6월의 어느 날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결혼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린 지금 이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은 지금 가진 이 마음으로 앞을 향해가고 합니다. 사랑과 이해, 존중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받

관심이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로 가꾸는 첫 걸음을 걷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저희에게 격려와 축복을 보내주세요. 그 메시지에 저희는 'YES'라는 답신을 보내겠습니다.

33 2012 9 15 .
.

(장려상)

살림은 중고, 사랑은 명품

박수임

연년생 형제들과 늦둥이 막내까지 세 아이들의 부모이자 함께 해 온지 어느덧 13년이 되어가는 저희 부부는 대형마트 자물 포장 대에 가득 쌓인 종이상자들과 테이프만 보면 조용한 미소와 더불어 뜨거운 눈물이 핑 돌니다.

그 사연은 아마도 1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의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된 남편과 저는 둘 다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과 속마음을 꺼내기 두려워하는 성향이 같아 서로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행선만 달리다 졸업 후 저는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사회초년병 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졸업을 앞두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기업에 입사합격을 확정받아 대기 중이었던 남편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우리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었을 때는 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다 사회에서 다시 만나니 왜 그렇게 진도가 쑥쑥 나가던지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 얼굴조차 보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시아버지와 성격상의 갈등으로 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남편과 시동생 두 형제들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오셨기에 종교에 의지하는 신앙심이 무척 깊고 당신만의 가치관이 확고하신 분이래 마음을 돌려볼 용기조차 감히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양친이 불교 신자이시고 딸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고 나서면서 서운함과 불편함을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양가의 축복 대신 차가운 대답으로 출발된 저희 부부의 시작은 미약하고 소박하며 조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양가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둘이서 힘을 모아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 드린다면 얼음같이 차갑게 굳은 부모님의 마음도 언젠가 녹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나중에 미뤘습니다. 연애 때는 커플티셔츠의 디자인과 색상, 데이트 장소나 맛집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당장 먹고 자고 입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직은 학생 신분이었던 남편과 사회초년병이라 월급은 모두 친정어머니께 드렸던 저는 수중에 가진 돈이 겨우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회사 근처에 보증금도 없는 월세 8만원에 연탄난방비 2만원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

우면 옆으로도 위로도 여유라곤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TV와 냉장고, 전기밥통은 동네 중고용품점에서 작고 저렴한 것으로 하나씩 사왔습니다. 버너로 국과 반찬을 해 먹고 빨래는 주인집 아주머니께 부탁해 세탁기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가구까지 살 엄두가 나지 않아 대형마트에 들러 자율 포장대에 쌓인 박스들을 몇 개 가져와 초록테이프로 단단히 붙여 속옷이며 옷가지를 보관했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무서워 도저히 가질 못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회관 공공화장실로 빛의 속도로 달려 나가곤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당시를 추억하면 절망이나 어려움보다, 남들에겐 초라하지만 스스로 마련한 단칸방의 연탄 난방의 훈기와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재도구들을 하나씩 마련해가고 남편이 첫 월급도 받으면서 가계부도 열심히 써갔습니다. 요즘도 새벽에도 젖을 찾는 막내 아기로 잠이 깨다시 잠이 오지 않으면 당시에 썼던 가계부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월급의 80%는 무조건 저축하며 열심히 차곡차곡 모았더군요. 그렇게 모아 작은 결혼식 비용도 마련하고 신혼여행으로 선택한 배낭여행 여비도 마련했습니다. 결혼 전 향수와 가방이나 구두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남편과 살면서 정말 아끼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친정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고 2년 후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아름답고 예쁘지만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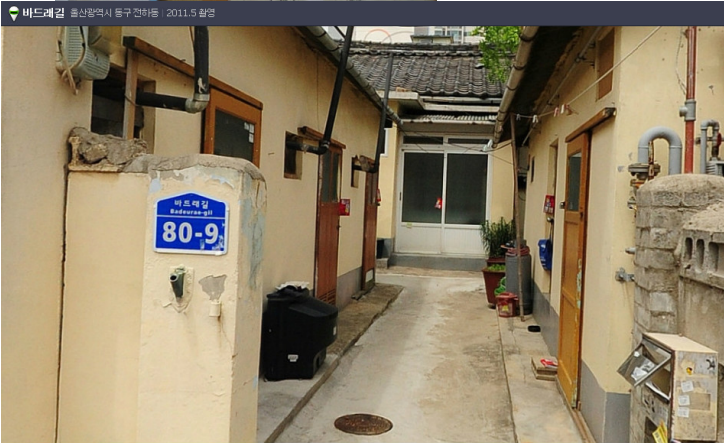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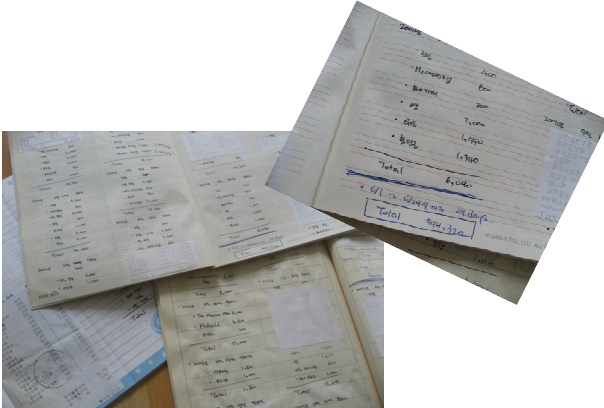
웨딩 앨범이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진에 떠밀려 창고에 가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서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처음 시작한 단칸방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작은 중고차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사이 세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저희가 13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간 저희 들만의 공간과 살림살이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것들을 이미 모두 가진 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시댁에서 받은 명품백과 전셋집의 크기와 가치가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로 착각해 자랑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뛰는 것에는 자신감도 재주도 없던 제 앞으로 모든 친구들이 멀찌감치 달려 나가 점점 멀어질 때 느꼈던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초등학교 때 훌쩍이며 달렸던 달리기 경주처럼 짧게 금방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부모님께 처음 받았던 화려하고 근사한 선물의 크기만큼이나 앞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할 선물의 크기와 무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가와 부부 사이에도 진정한 함께라는 삶의 의미보다 더하기와 빼기, 경제적인 손해와 이득이 더 앞서 오해와 갈등으로 다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부부

는 처음부터 아니 지금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작은 전셋집, 작은 중고차, 작고 낡은 살림가재들이라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저희 부부가 함께 이룬 것들이라 즐겁고 기쁘고 눈물겹고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랑스럽습니다. 시작이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인생의 마무리나 삶의 과정까지 화려하고 크지는 않습니다. 어려웠던 신혼을 함께 하고 자신들만의 가정을 일궈냈다는 것은 부부의 사랑이나 자신감에도 견고한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우리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작은 결혼식과 큰 결혼이란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부모도 진정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편리한 삶과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라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해서, 또 남들처럼 무언가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없이 마주치게 될 크고 작은 삶의 난관들에 넘어지고 때론 다치고 울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돈으로 사랑의 그릇을 채워주려는 부모

님의 마음보다 부족하고 어려워도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더 오래 도록 기억한다는 결요. 저희가 그러했듯 말입니다. 집과 결혼식과 혼수보다 사랑이란 명품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어떨까요?



(장려상)

너와 나는 똑같아!

주선경

2011년 12월 17일, 14년의 연애기간 끝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교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어렵게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

나, 1남 3녀, 아버지는 엄하게 독립심이 강하게 키우셨다. 늘 “대학공부까지만 도와줄 거야. 결혼은 알아서 벌어서 가”라며 우리 4남매를 키우셨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교육시키셨기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며 알뜰살뜰 아끼면서 살았다.

신랑, 2남 4녀, 6남매 막내로 역시 독립심 강하게 자랐다. 신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맏이인 누나랑 30살 차이, 다섯째 누나랑 7살 차이가 난다. 넉넉지않은 환경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형제자매의 도움없이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며 살아왔다. 몇 년 후엔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도 졸업하였다. 그렇게 신랑도 알뜰살뜰 아끼면서 살았다.

나는 꼼꼼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관리하는 데에 소질이 있었다. 물론 돈도 그랬다. 현재 신랑을 어느 정도 사귀고 난 후, ‘이 사람 돈 관리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월급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했더니 나를 믿었는지 나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물론, 통장명의로는 신랑으로 해놓고 말이다. 나는 선뜻 그러겠노라 했고, 매월 월급 받는 날은 나름 재무설계 해주는 날이었다. 지출은 이렇게 하고, 이번 달 적금은 얼마정도 할 수 있겠으며, 현재 어느정도 모였는지 통장을 보여주며 바로바로 이야기 해줬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와 사귀면서 이것저것(가방, 화장품, 옷 등) 받고 싶어서 애교도 부리며 기념일도 챙기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 ‘왜 남자들이 다 해줘야 하지?’라는 생각이 연애시절부터 의문이었다. 양성평등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그런 부분에는 여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양성평등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직장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나의 제안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매월 똑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공통비용 등 데이트비용은 똑같이 모아놓은 통장에서 지출하였다. 그렇게 하니,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 2011년 12월 17일, 우리의 수많

은 꿈 중 가장 큰 하나, 결혼이라는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 아니, 한 가정을 이루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었다. 오랜 기간 사귀었기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대화를 통해 우리의 꿈을 설계해 나갔기에, 결혼을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딱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집의 반대였다. 모든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듯, 어렵게 자랐고 키가 조금 작은 신랑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더욱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득했던 결혼준비였으며, 결혼이었다.

먼저,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지출을 삼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양가의 도움은 벌써부터 생각지도 않았기에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순수 각자의 적금을 합해 예산을 세웠다. 신랑은 10년간 일했지만 나이 많으신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랴, 학교 다니랴, 일한 기간에 비해 많이 모으진 못했다. 나도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알뜰살뜰히 모아도 5년간의 적금은 많지 않았다. 여하튼, 일한 기간은 달랐지만, 둘이 모은 비용은 비슷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반반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가장 큰 짓은 집이었는데,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대출을 조금 받아 우리가 꿈꿔왔던 32평의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 날은 두 번째로 우리의 꿈이 이뤄지던 날이었다. 30대에 30평대의 아파트, 기도하는 대로 이뤄

졌다. 또 한 번 감사한 날이었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부모 도움없이, 우리 힘으로 아파트까지 장만했다고……. 그래서일까,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나 스스로 웬지 뿌듯해하며 다닌다. 돈이 가는 곳에 간섭도 있던가, 우린 양가의 간섭도 없으며, 특히 난 시댁에서도 당당하다. ^^ 집 장만은 이렇게 이뤄졌다.

다음으로 결혼 준비.

서로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았고, 각자 공평하게 반반 부담해서 준비하는 결혼이었기에, 각자의 부모님을 설득해 예단, 예물, 폐백, 신행 모두 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셨다. 서로 필요한 것만 하였다.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섭섭해하실 거 같아서 시어머니 반지, 친정어머니 목걸이, 난 목걸이&귀걸이, 흔히들 결혼 때 한번 한다는 다이아는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지 않아서 딱 필요한 것만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의 한복, 저고리와 치마 한 세트만 하였다. 신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혼반지도 2년 전에 구입한 커플링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 폐백과 신행 반찬도 허례허식이라 생각하여 생략했다.

우리가 한 것은, 웨딩촬영, 생략하려고도 했다가 안하면 후회한대서 촬영은 했다. 역시나 안했으면 후회할 뻔하였다. 둘 다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기 때문이다. 리마인드 웨딩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을 정도였다.

또, 신혼여행, 여행만큼은 쉽게 가지 못하는 호주로 다녀왔다. 동남아 쪽은 단기선교로도 다녀왔기에 지금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녀오고 싶었다. 둘 다 의견이 같았다. 역시나 다녀오고 난 뒤 후회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꿈은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고 재정적으로도 하나가 될 텐데 내 돈, 네 돈, 따져가며 결혼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우리의 행복한 결혼이었으며, 기도했던대로 결혼 2개월 만에 선물 받은,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장려상)

사치가 아닌 가치의 결혼식

현 정

녹색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이 온몸을 감싸주며 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던 8월 저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해 수많은 결혼식장을 찾았답니다.

우리가 가진 한도 내에서, 과하지 않은 결혼식으로 멋진 출발을 하자! 라는 저의 소박한 생각에 응해주었던 착한 남편. 그래서인지 참으로 많은 예식장을 둘러보면서, 혀를 내두르게 하는 턱없이 비싼 예식비, 하객들의 밥값 그리고 메이크업 등등, 결혼식이 결혼을 하는 날인지 돈을 쓰는 날인지 너무나 혼잡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거 말고, 우리 둘만의 특별한 결혼식 어때!”

“특별한 결혼식?”

“그래!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지만 과하지 않은 결혼식!”

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갸웃갸웃. 세상에서 한번뿐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여자의 마음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부담스러운 결혼식보다는 소박한 결혼식으로 내일의 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아니 그때의 예비신랑의 팔을 붙잡고 이곳저곳 참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답니다.

화려하지만 분주한 예식장이 아닌, 저희 둘만의 특별한 예식장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원을 가진 농원의 예식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뚜욱 끊긴, 이제는 다소 허름한 예식장이 되어버린 그 농원은 오래된 예식장일지는 몰라도 정말 자연의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멋진 공간이었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여기서 야외 결혼식을 해보는 거야!”

저의 말에 예비신랑의 두 눈은 동글동글.

신랑의 궁금함을 뒤로 한 채 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멋진 야외 결혼식을 준비했답니다.

바로 예식비를 줄이기 위해 야외결혼식을 택한 거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식장이 아닌 예쁜 농원을 조금 빌려 쓴 것이지요.

거기에 단상을 빌리고, 하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대여하고, 생화가 아닌 조화로 예쁘게 예식장을 장식할 수 있어서 예식비가 많이 줄었답니다.

한번 입는데 몇 백만 원씩이나 하는 고가의 드레스보다는

인터넷에서 손품 팔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드레스를 빌리고, 또 고가의 신부 메이크업은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그런 저를 보면서, “참 고맙고, 우리 정말 앞으로 걱정 없겠다”는 말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제 메이크업을 해주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내 손으로 널 예쁘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는 말로 저를 눈물 나리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빛나는 결혼식을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국수와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으로 그야말로 동네 잔치하는 모습처럼 먹을거리 한판 구수하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사실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도 모두 하지 않았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래된 의식을 행하기보다는, 사랑 안에 우리 서로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특별한 여자이자 빛나는 신부였습니다.

11월 9일 가을의 문턱이 한층 가까이 찾아왔을 때, 갈색빛

나무들이 저희를 축하해주었고, 농원 한켠에 있는 감나무들도 새빨간 얼굴로 밝게 웃어주었고, 신부입장을 할 때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낙엽은 그 어떤 노래보다 흥겨웠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결혼식 비용으로 아낀 돈으로 시부모님에게 멋진 소파를 사드렸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느라 한평생을 고개숙이고 사셨던 저희 시부모님. 그래서인지 늘 허리와 무릎이 아프셨는데요. 사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성격이시라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고, 아련한 아픔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지만 그런대로 참고 그러려니 참고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시부모님들의 하루속 편안함을 선물해줄 소파를 사드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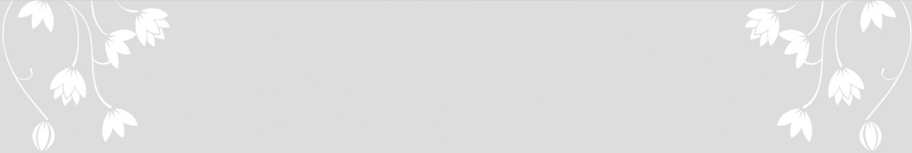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사치가 아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꾼 가치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아휴! 올 새아가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시던 저희 시어머니. 그날의 감동은 멋진 결혼식을 한 것보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제 가슴속에 남아있네요.

흔히 결혼식은 ‘일생 단 하루뿐인 날’이라는 생각에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하루뿐인 날

때문에 수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이 수많은 말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의 결혼! 돈이 아닌, 사치가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많은 커플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참가작

1. 눈물의 결혼식 / 강은애
2. 이불솜을 틀면서... / 구정혜
3. 결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 김미숙
4. 메마른 땅에 핀 사랑 꽃 / 김정음자
5. 미련한 선택 / 김진숙
6. 결혼을 꿈꾼다 / 박현주
7. 격식타파,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착한 결혼” / 윤소영
8. 21번째 결혼 / 이은비
9. 착한 결혼식 / 이인희
10. 마흔 넘은 내가 꿈꾸는 결혼 / 장미자
11. 장애인 시부모님을 맞은 누구집 귀한 딸 / 장은주
12. 허례허식을 없애는 결혼!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요! / 장현숙
13. 로또를 산다 / 전예중
14. 결혼은? 결정! 혼자서도 잘해요 / 최정근

눈물의 결혼식

강은애

남편과 저는, 제가 공부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남편이 헌병으로써 군위탁 법학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만나게 되었고, 평소 먼저 군위탁을 온 남편의 선배들과 친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학기 정도 물권법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다, 여름방학이 지난 후,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저는 남편의 남자다운 매력과 배려에 끌리게 되어 2학기가 시작되는 2008년 9월 4일 목요일 첫 데이트 날부터 남편의 공식적인 프리포즈와 함께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으므로 아들이 없는 저희 집안에서 아들 역할을 해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그룹과외를 통해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제 공부를 위한 비용을 벌어야 하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에 남편과의 만남을 많이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저의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면서 더욱더 저를 아껴 주게 되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겨 남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

해서 제 공부끝나서 취업을 하게 된 후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 합격은 쉽지 않았고, 저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여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어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영어강사로서 등록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저에 대한 꿈을 간직하며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 것이, 제 일이 빨리빨리 풀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친척들 중 작은 아버지께서 로스쿨 졸업 후로 연기해 두었던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 결혼식을 꿈꾸셨고 정말 보고싶어 하셨다는 것을 작은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희는 서둘러서 결혼을 준비하여 작년 12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2011년 12월 17일 우연히 김정일의 사망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식을 그토록 보고싶어 하시던 아버지없이 하게 되는 결혼식이어서 결혼식 전날부터 그토록 마음이 심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의 하객의 대부분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주례를 서시는 목사님 또한 이 결혼식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아버

지를 생각하여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우리 하객들 모두 결혼식내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신부 입장시 작은 아버지와 입장할 때,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부모님께 전하면서 인사해야 할 때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작은 아버지께서 앉아 계실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례를 서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도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또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평소에 감정 표현이 많이 없으신 목사님께서 주례 내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이자 가장 슬펐던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결혼식 음악 연주를 당시 제가 일하던 학원 이사님의 배려로 음대 재학 중인 그분의 딸이 친구들을 모아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트리오로 준비해 주어 유명인사의 결혼식과 같이 결혼식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혼식 후 학원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결혼식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부부의 결혼식이 다른 부부에 비해서 간소하였으며, 이는 집안 어른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남편이 군인으로써 떨어져지내야 하고, 로스쿨 학업을 이제 막 시작한 저의 특수한 상황을 양쪽 집안 어른들께서 이해해 주신 저희의 독특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

는 공부만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는 저의 사정을 시부모님께서 이해해주셔서 오해없이 서로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여서 결혼식을 간소하면서도 만족스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식장 및 웨딩의복 준비 및 음식준비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낭비 방지와 서로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키지 결혼비용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모교(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졸업생 대상 결혼패키지(결혼식장, 음식비용, 웨딩의복을 단체로 주문받아서 한 개의 루트로 주문함)으로써 133만원으로 결혼식 일괄비용을 처리하여 보통 결혼비용인 400~500만원의 1/3가격으로(실시함)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결혼식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던 저와 군인으로 일하고 있던 저희 남편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었던 저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보통 많이들 하는 웨딩화보 촬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결혼비용을 50만원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결혼식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여 친구, 가족들과 자유스러운 축하분위기를 촬영하여 진심이 담긴 사진들을 웨딩화보 대신 사진첩에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결혼식 예물에 있어서도, 상호간 예물교환 비용을 과감히 절감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혼인 만큼, 형식적인 걸치레인 예물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 예물비용으로 보통 신랑측에서 500만원을 신부 측에서 1000만원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양측 다 500만원을 보내기로 상견례에서 정하여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비용으로 결혼을 준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경우라 생각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예물은 간단한 결혼반지로 대체하고 일체 혼수물품(가구, 자동차 등)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군인인 관계로 군관사(보증금 90만원/월 9만원)를 활용하기로 하고, 따로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적금(3000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장기 예금으로 저금하여, 장기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 독특한 점은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신부들에게는 섭섭할 일이겠지만, 신혼여행비를 저축하여 저의 로스쿨 학업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남편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커플들은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남으로써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의식형 결혼여행을 과감히 생략하고 배우자와 상호간 의미 있는 장소(남편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내부 박물관 포함), 저의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함으로써 상호이해의 기틀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배려를 통해 저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그동안 숙원했던 법학공부를 일을 병행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부로서 서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내인 저의 꿈(변호사)을 이루기 위한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다른 커플들의 경우,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결혼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결혼 후에 서로의 결혼예물 등에 불만이 생겨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은 경우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하게 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결혼식의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는 이번 공모를 발견하고, 저희와 같이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 허례허식의 결혼식이 아닌 각자에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하에 저희 부부의 경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결혼식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커플이 결혼식 준비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불솜을 틀면서...

구정혜

오랫동안 베풀고 베풀던 이불솜을 여름이 되기 전에 틀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 미루어 왔던 일이었다. 대상은 20년 전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두꺼운 혼수이불. 거의 덮지 않고 늘 이불장에 장식품처럼 들어앉아있던 것이었다. 결혼할 때의 유일한 사치품이었다고나 할까.

스물일곱 되던 봄 따뜻한 날에 결혼식날짜를 잡으면서 남편과 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의 원칙이 합의되었다. 남편은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의 한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여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로 했고, 모든 일들을 부모님이 아닌 우리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한 일이었다.

당시에도 통상 결혼식 하면 의무처럼, 일생의 단 한 번인데 한 번쯤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이며, 웨딩촬영, 예단, 신혼여행 등등...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형식이나 관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결혼 준비 과정에 흔히 있을 법한

양가의 갈등도 거의 없었으니 참 다행이었다고나 할까. 친정 부모님은 기독교신앙이 없었던 분이셨으나 기독교식의 예식 절차에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으셨다.

당시에는 이례적이었는데, 결혼식 날짜는 평일로 잡았다. 봄이라 주말이면 결혼식장 잡기도 어렵거니와 친정의 경우 지방이어서 대절버스로 새벽부터 올라오셔야 했으므로 가능하면 교통체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평일이라 하객들이 참석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실 분들은 오시겠지 하는 배짱도 있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1:00가 우리의 D-데이였다.

결혼식장은 양재동 시민의 숲 안에 위치해 있는 매현 윤봉길의사기념관으로 잡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기념관을 결혼식장으로 대관해 주었다. 하루에 한 팀밖에 받지 않는데다가 비용도 일반 결혼식장과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했다. 게다가 친정의 대절버스의 접근성도 뛰어났으니 일석이조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의미있는 결혼식장이었다. 구내에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것이 흠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한식당이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웨딩촬영이니 이런 것도 옵션에는 있었던 것 같지만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여겨진 데다 사

진을 전공하는 남편의 교회 후배가 결혼식 전 간단한 야외 촬영과 결혼식 사진 등을 맡아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비디오 촬영은 남편의 회사 동료가 맡아주었다.

결혼식 예복은 한복드레스를 입고 싶었으나 마땅히 대여해주는 곳이 없어 기념관에서 대여해주는 드레스를 입기로 했다. 남편은 검정색 턱시도우 대신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양복을 구입하여 예복으로 입었다.

남편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제품도 꼭 필요한 것만 장만하였다. 가구는 양재동 가구 직판장에서 튼튼해보이는 원목 장롱, 서랍장, 장식장 등을 구입하였고, 가전제품도 냉장고, 세탁기 등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였다. TV는 남편이 쓰던 것을 그냥 쓰기로 하였다. 그릇 등 살림살이는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하였다.

혼수는 양쪽집이 간소하게 하기로 하여, 예단비로 같은 금액을 교환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양가 친지들께 여름 차렵이불을 선물했던 것 같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 하셨다. 그리고 이불만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시다며 이불을 준비해 보내주셨다. 두꺼운 이불은 많이 덮지 않으니 기본적인 것만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는

데도 예쁜 수가 놓인 이불을 겨울, 봄가을, 여름, 철에 맞춰 준비해 주셨다. 엄마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다.

결혼식 당일,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다. 결혼식이 끝나고 폐백은 당연히 양쪽어른들께 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댁과 친정어른들께 다 폐백을 드렸다.

우리의 알뜰 결혼식은 신혼여행에까지 이어졌다. 여행지는 제주도와 부산. 평일인데다 미리 예약한 관계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남편의 후배가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와 렌터카 운전과 사진촬영까지 해주었으니, 지금 와 생각해도 참 고맙기 그지없는 후배다.

그 후배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사진을 예쁜 앨범에 담아 선물해 주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신혼여행지에서의 에피소드도 생각난다. 제주도 여행 중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성가대원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했다. 흔한 기념품은 식상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해안의 구멍뚫린 돌. 조그만 돌맹이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씩 주변 좋겠다고 열심히 마흔 개 정도를 주웠다. 그것이 반출이 안 되는 것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돌맹이를 트렁크에 고이 넣어 제주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들리는 것이었다. 검색대에서 딱 걸린 것이다. 몰랐다고, 빼놓고 가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공항직원이 돌멩이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사람에게도 선생님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있지요. 이 돌은 저 같은 돌이에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별 가치(?)가 없는 허드렛돌이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 돌멩이들은 무사히 우리 성가대원의 손에 들어가서 화분 한 귀퉁이에 앉아있게 되었다.

그렇게 결혼식의 모든 일정이 끝났고, 결혼식으로 해서 빛을 지거나 하지 않았으니 우리의 알뜰 결혼식은 성공이었다고나 할까. 20년이 지났지만, 결혼식 자체에 대해 우리가 알뜰하게 하느라고 놓쳐버린 것이 없나 아쉬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무엇이든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셨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기만 했다. 신혼 전셋집도 결국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다 갚았으니, 온전히 우리의 결합은 우리 손으로 해결한 셈이다.

요즘 결혼식 비용에 대해 많은 기사들을 대하게 된다.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느니, 결혼식 비용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다느니, 나중에 아들 장가보내려면 집 팔아야 한다느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두 사람의 경건한 약속을 남의 이목과 체면, 한순간의 허영심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치장하게 된다면, 과연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불솜이 참 좋네요. 이거는 평생 쓸 수 있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정말 큰 맘 먹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꺼내놓은 이불솜을 보시고 솜 트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다. 결혼 20년 만에 솜을 틀어 두꺼운 이불을 부부용, 아들용 이불로 다시 만들었다. 이불호청은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낡은 것도 있고 세탁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따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던 친정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 딸의 이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무리하시지나 않았을까 마음이 새삼 아려왔다. 친정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엄마의 그 마음이 바로 옆에 있는 듯했다.

결혼 20년, 세월은 참 빨리도 갔고 우리 옆에는 듬직한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결혼할 때 두 몸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식을 스스로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결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김미숙

연애 기간 1년 5개월 21일, 결혼 생활 12년 4개월째 지속.

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한 남자와 함께 한 세월이 만 13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서 연애기간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헤어지는 게 싫어 결혼에 이른다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실감한 세월이었다.

연애 기간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길다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2~3일 빼고는 매일 만났으니 만난 횟수로만 치면 수년 동안 연애한 이들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 지독한 가난을 겨우 벗어나기까지 벌어들인 돈은 친절 살림에 보태고, 뒤늦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본다면 공부하는 동안 그나마 있던 돈을 용돈으로 다 써버린 나는 20대 후반에 새로운 직장에 갓 입사한 때였고, 남편 역시 버는 족족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한편 청춘을 불사르느라 결혼에 필요한 금전이 모일 턱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은 생각도 못했는데 막 봄기운이 느껴지던 2000년 3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10살이나 어린 직원이 웨딩 화보가 실린 잡지를 뒤적이다 말고 5월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남짓된 아직 학생같은 직원의 말을 듣고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 어리고 남자친구도 없어서 불행하다며 갑자기 언니가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역시 별생각없이 “좋지!” 하고 맞장구를 쳤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내 나이 스물아홉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5월에 결혼할까?’ 하고 장난섞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 서로의 환경을 너무도 잘 알기에 진지함없이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으므로 답장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다. 메시지를 보낸 3일 후에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뜬금없이 남편.

“큰 처남(큰 동생이 1999년 3월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이 결혼식 할 때 내가 다짐한 게 있어. 적어도 작은 처남(막내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당신 데려오겠다고. 물질로만 따지면 우리 둘이 결혼하기에 지금보다 더 나쁜 시기는 없겠지만, 그냥 나 믿고 오면 안 되겠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수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모아둔 돈이 겨우 500여 만 원, 남편의 큰 형이 마침 장비 일을 접으면서 팔았던 1톤 트럭 값 600만 원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이마저도 결혼을 결심하고 형에게 의논을 한 결과였기에 움막에서 살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터를 잡고 굶지 않을만큼 자리를 잡은 우리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가난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결혼을 생각하고 두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눈이 핑핑 돌아갈 만큼 분주하고 머리 복잡한 일이 한 둘이 아니었다. 양가 부모님만을 모신 상견례에서 부모님께 결혼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 대신 축의금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신 일가친척의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받아 온 축의금만큼 부모님 이름을 써서 내기로 약속을 했다.

혼인신고를 20일 앞당겨 한 후 은행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우리가 가진 돈을 합해 이천사백 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가구와 이불은 친정에서 쓰던 것을 모두 가져왔다. 결혼을 하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예쁜 그릇에 대한 환상도 없지 않았지만, 형편상 친정과 시댁에서 안 쓰는 그릇을 모아서 싱크대 서랍을 채웠다. 결혼한 언니와 가까운 친지들이 먼저 축의금으로 주신 돈으로 새로 장만한 건 저가의 TV와 냉장고, 세탁기, 침대가 다였다. 결혼 예물 역시 14k에 큐빅이 박힌 반지를 29만원에 사서 나누어 낀 게 전부였다.

성격상 요란하게 꾸미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걸 싫어했던 탓에 결혼식 전에 하는 웨딩촬영은 물론 신부 마사지도 생략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초라하게 시작한 신혼살림이었지만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 넘쳐났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 맛별이를 한 덕분에 1년 만에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컴퓨터와 자동차를 구입했다. 비록 할부금을 일부 끼고 산 차였지만 정직하게 벌어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구입한 차라 감회가 남달라 차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같이 감사기도를 했다.

이렇게 결혼하고 2년이 다 되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더 요구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부모님들께서 평생 내 집이라 불릴만한 집을 갖지 못해 모진 고생을 하다 겨우 작은 집 한 채씩 장만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작더라도 우리만의 집이 있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직 젊고 좀 더 절약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이때 과감하게 내린 결정으로 주변에서 술하게 겪는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아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만큼 결혼을 서둘렀지만, 다른 이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내 삶의 터전을 넓히고 채워나가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다.

나보다 먼저 결혼한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나와 막내 동

생 모두 모이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니, 어떤 모습으로 결혼을 했든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부모님의 도움없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돈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부모님 또한 전세 값이라도 마련해줘야 부모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건강하게 낳아 공부시켰으면 할만큼 한 거라고, 어린애들 아니니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줄 알아야한다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다.

지금도 가끔씩 남편과 옛이야기를 할 때면 웨딩촬영을 하지 못해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거나 남들 하는 것이라고 생각없이 따라하면서 살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다는 얘기를 한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실한 남편과 아내로, 아빠와 엄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에 겉모습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메마른 땅에 핀 사랑 꽃

김정음자

1970년 7월 7일.

오랫동안 앓았던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왼쪽 폐 한 쪽을 도려내었습니다.

내가 결핵이라는 병을 알게 된 것은 1958년. 내 나이 열네 살 그리고 중학교 2 학년 때였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X레이를 찍었는데 폐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시면서 당분간 학교를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폐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선고받았지만 학교를 설 수도 없었으며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십삼 년 동안 그저 가슴만 앓고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애타게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겉모습은 건강하여 중학교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폐결핵이 교사 임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그 옛날을 살았던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공무원 건강검진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직원에게 공개되어 날아오는 폐결핵 환자라는 통보는 비수가 되어 내 앓는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숨죽이면서 가슴을 앓았던 폐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어 폐 한 쪽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폐 한쪽을 도려내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버림 받는 여자입니다. 이웃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폐병이 깊어지자 그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면서 “교사는 발령장 한 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다른 학교로 가서 잘 살기 바란다.” 하는 말을 듣자 나는 나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병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병들어서 미안하다. 난 도망 갈 만큼 잘못된 것 없어. 나는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거야.’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며 슬픔을 삼켰지만 자꾸만 솟구치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이곳에서 6년을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였습니다.

1976년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여덟 시.

장소는 내가 섬기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됨을 약속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얀 한복이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시집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결혼식을 하였지만 나의 결혼을 후회하

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집은 가난하여 사범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여 학비 독촉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되었지만 가난한 살림에 병마까지 겹쳐서 생활비는 언제나 부족하였습니다. 서른을 넘기는 노처녀가 되었지만 결혼할 자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구리 반지를 보석으로 여기며 결혼식을 올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난함이 결혼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한 가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모든 형식을 뛰어 넘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시골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은 서울생활을 접고 고향인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십 명쯤 되는 작은 교회이기에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야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결혼 비용이 오백 원이었는데, 그 비용은 결혼식장으로 가기 위해 이용했던 택시 요금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여 살림도구도 없이 결혼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가구를 장만하면서 그 옛날 가난한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그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는 나에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당신이 죽을 때, 내가 꼭 안아 줄 테니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가세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결혼행진곡도 없이 우리는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육남매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납작한 초가집에 마루는 삐걱거리는 대나무 평상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평상에서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므로 이 가난도 내 몫이라고 수없이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사랑을 받으며 교회생활을 하는데 시아버님께서 나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헛되다는 믿음으로 아버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이 년째가 되었고 막내 도련님이 아홉 살 때에 시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형수가 아니라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 어린 동생

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2002년. 아버님께서 팔십이 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다섯 남매는 모두 훌륭하게 장성하여 자기의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 나보다 더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슴앓이는 끝이 없습니다. 폐병은 영구 완치가 아니라 약을 한 움큼 삼키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을 것이라는 약함이 나를 언제나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정년퇴임은 이를 수 없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31일.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폐 한쪽으로 가쁘게 숨을 쉬면서도 사십삼 년의 교직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황조근정훈장을 목에 걸고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돌아다보면 나의 교직 생활의 사십삼 년은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험한 길을 헤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남편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깨진 유리그릇을 보듬듯이 나를 아끼고 살피주는 그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눈이 오는 날이면 따뜻한 외투를 들고 교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남편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 몹쓸 폐병, 연상의 여인 어느 것 하나도 결혼할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일구어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은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했고 살림가구도 편리할 만큼은 있습니다. 달콤한 신혼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인생의 긴 여정에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여 아기를 갖기가 어렵다고 걱정을 했지만 아들은 바르게 자라서 대학교 교수를 목표로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엄마’ 라는 아들의 고백이 박사 학위 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합니다.

나는 나에게

“정음자, 너는 결혼을 참 잘 했어. 그리고 매우 잘 살았어.”

칭찬을 하면서 금메달을 내 목에 걸어줍니다.

메마른 땅에 사랑의 꽃을 피어낸 바로 나에게.

미련한 선택

김진숙

아침, 서늘한 바람이 골목길을 돌아 싱그럽게 빛나는 늦여름의 잎사귀를 흔들면 7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꼭꼭 옷깃을 여미어도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오던 칼날같은 바람처럼 잔인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나의 이십대. 그런 스스로를 안타깝게 놓으려했던 그때. 얼음 같은 가지 위에 벚꽃 움트듯 그와 마음을 틔웠다.

그의 수수함이 좋았다. 그의 정직함이 좋았다. 그는 꾸며 말하지 않았다. 상처로 얼룩졌던 유년시절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왔던 그의 이야기들은 나에게도 치유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의 마음이 좋았다. 나 또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었다.

후덥지근한 더위가 제 풀에 지쳐가기 시작할 무렵 그와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약속을 잡고 난 뒤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가난했다. 어려웠던 가정형편에 도와줄 이 하나 없었고 늦깎이 대학생으로 휴학을 반복하다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직

장인이었다. 두 식구가 누울 곳도 마련할 수 없는 가정의 자괴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때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뵈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 부모님은 너무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늘 사람의 됴됨이가 먼저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의 됴됨이를 알아 주셨고 그런 그를 사랑하는 딸의 선택을 믿어주셨다. 그런 부모님이 감사했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먼저 결혼한 선배나 친구들은 만류를 했다.

“야, 결혼은 현실이야. 어떻게 남자가 그 나이 되도록 전셋집 마련할 돈도 없냐? 시댁에선 안 해준대?”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없는 남자랑 결혼하냐?”

“애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미련하네. 결혼은 사람 좋은 걸론 못 산다”

“여자는 대충 구색 맞춰서 혼수 해가도 남자는 집은 있어야지”

가슴 쓰린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야기……. 시댁에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사주고 다이아에 진주와 순금으로 이뤄진 3단 예물세트 이야기며 시어머니 모피코트를 어느 백화점에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란 이야기를 들으며 사

람은 좋지만 가난한 남자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난 한심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여자가 되어있었다

어려웠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 준비와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겠지만 난 그를 믿었고, 나를 믿었고, 우리를 믿었다. 처음 우리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결혼 준비도 많은 대화로 시작했다.

결혼의 시작은 현실이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결혼에 대한 여자로서의 환상을 벗어 던지고 한 가족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출발을 현명하게 시작하고 싶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빗을 내지 않기로 하고 내가 살던 반 지하 원룸 자취방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신혼살림은 각자 가지고 있던 것들로 채웠고 다행히도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장만한 것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까? 식장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저렴하게 했고 예물은 서로 반지 하나 나눠 끼고 예단은 생략하기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흔쾌히 승낙하셨다. 처음 만딸을 보내시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그럴듯하게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고 욕심을 내어 관여하시지 않으셨다.

어느 누군가에겐 미련한 선택. 그런 나의 결혼은 결혼생활 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꾸미고 놀기 좋아했던 나를 윈 플러스 윈 상품에 싸게 샀다고 감동하는 평퍼짐한 아줌마로 만들었고 술 한 잔으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박

박 굶어대는 바가지의 달인으로도 만들어 졌다. 세 아이를 업고, 잡고, 걸리며 무료공연을 쫓아다니는 극성스런 엄마로 만들어 주었고, 늦은 밤 나의 미래를 개척하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스탠드에 불을 밝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아이들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지역 환경과 연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가끔 결혼준비 과정에서 혼수 때문에 파혼하거나 이혼했다는 뉴스를 보면 씁쓸해진다. 호화로운 결혼이 행복의 시작임을 돈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불행한가. 남녀평등은 외치면서 함께 시작하는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가. 왜 각자의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의 결혼에 부모가 개입되어 파탄에 이르게 하는가.

연애, 결혼, 아이를 포기 하고 사는 삼포세대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남보다 더 좋은 곳에서, 남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하길 바라는 사회적 현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다 준다. 이는 그들을 더욱 고립된 삶으로 이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해 서로를 닮았지만 온전한 다른 인격체를 가진 아이를 낳아 살아보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비교 병에 걸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가정의 시작인 결혼부터 배우자며 시부모나 며느리, 자식까지 남과 비교하는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론은 돈이다.

돈으로 모든 걸 환산시키는 시대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조차 지나치게 돈으로 값을 매기려 하는 것 같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결혼은 다른 사람에게 재력을 뽐내기 위해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다. 결혼은 색깔이 다른 영혼이 만나 깊은 교감과 소통을 통해 남은 시간을 함께 꾸려가는 출발점인 것이다.

2년 전 별이 잘 드는 2층 전셋집으로 이사를 왔다. 우리 두 부부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하나 둘 마련해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모님께 큰 효도는 못해드려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

7년 전, 그때 그 미련한 선택으로 지금의 난 듣직한 남편과 세 아이들 틈에서 오늘도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결혼을 꿈꾼다

박현주

2008년 4월 5일. 날 좋다는 청명 한식에 결혼한 후배가 있다. 나보다 4살 어린 후배로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면서 설레었던 이유는 처음 참석하는 야외결혼식이라는 거였다. 기대를 하고 함께 갈 사람들과 오전에 모여 안성으로 향했다.

그 후배의 부모님은 러시아 선교사이시고, 결혼한 언니 하나, 오빠가 둘 있었다. 참으로 재능 많고, 씩씩하고 멋있게 자란 후배였다. 2남 2녀. 평소 내가 꿈꾸던 것이고, 부모님의 삶도 훌륭하셔서 그랬는지 더욱 기대가 되었다. 결혼식 장소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집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상황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깊은 시골이었는데, 가면서 오랜 만에 구수한 쇠똥 냄새도 맡고,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어서 좋았다. 도착하니 결혼식에 걸맞게 풍선과 꽃장식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움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그 후배의 결혼식은 나에게 준 값진 ‘선물’이었다. 한 번도 생각도 못 했고 본 적도 없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다. 입구부터 길 양쪽으로 사진을 걸어 두었다. 신랑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연애시절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까지. 그런데 전문가의 손길이 아닌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여 아기자기하고 정성스런 손길들이 느껴지는, 업체에 맡겨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찍은 정겨운 사진들이었다. 참신하고 재미있고 새로워 사진을 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

다음으로 신부의 드레스와 대기실.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같은 단순하지만 귀여운 스타일의 드레스였는데 그 드레스도 신부가 디자인하고 친구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공은 디자인 쪽이 아닌데, 자신이 입고 싶은 드레스를 간단히 스케치하여 친구에게 주었더니 친구가 만들어 주었다는 거다. 무슨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실은 부모님이 쓰시는 농기구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고 참 귀여웠다.

후배 부부는 흔히들 하는 결혼식의 모든 틀을 완벽하게 깨고, 평소부터 ‘결혼’이라는 연극을 기획하여 준비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둘 다 아직 모아 둔 돈이 많지 않고, 식보다는 이후에 함께 살 집에 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식은 단출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평소 국토 대장정이 꿈이었다며 둘이 가방 메고 전국일주를 한다고 하였다. 음식만 업체에 의뢰하여 준비하고, 음식 외의 모든 것들은

신랑과 신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부모님도 하객처럼 참석만 하시도록 하고 폐백도 친구 한 명이 평소 관심이 있어서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예물도 미리 나눠진 커플링으로 대신하고, 답례품으로 커다란 무지개색 우산을 준비해두어 가지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도록 했다. 돈이 아닌 정성만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식 이후 학예회처럼 신랑이 사회를 보고 모든 하객이 참여하는 퀴즈대회도 열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결혼식이었다. 준비과정부터 식까지, 식 이후 둘의 삶까지 후배 부부는 서로에게 친구였고, 동료였고, 기획자였고, 스태프였고, 매니저였다. 그렇게 알콩달콩 둘만의 삶을 둘이 함께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늦은 시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에 ‘결혼’이라고 쳤다.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수기 공모’가 눈에 띄었다. 여전히 나는 솔로이고, 아직도 결혼에 관해 생각할 때면 결혼식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검색창에 ‘웨딩드레스’를 치고는 맘에 드는 웨딩드레스를 40벌 이상 갤러리에 저장해 놓고는 보고 또 보고 하며 베스트를 골라 나가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였었다. 그 이후에는 식장에 대해 고민했고, 스타들은 어느 업체에서 웨딩촬영을 했는지 나는 어디에서 할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곤 했다. 그 때 눈에 들어 온 문장이 바로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였다. 뒤통수를

누구에게 맞은 듯 번쩍 불이 들어왔다. ‘나는 결혼을 준비한 게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결혼에 관해 꿈만 꾸던 내게 현실적인 생각을 정립해 나가도록 그 문장이 나를 이끌었다. 그 이후 우울한 문장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라!(김미경씨의 강의에서)’, ‘서로에게 머슴과 하녀가 되어라.’, ‘좋은 부모가 될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현실이다.’ ‘눈높이를 낮춰라.’, 등 모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보니 2008년은 참 중요한 해인 것 같다. 후배가 결혼했던 해 12월 멋진 가정을 이루신 분을 만났다. 슬하에 두 딸을 두신 전직 기자이신데, 그 분의 훌륭한 삶이 살아있는 모델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을 기도로 삶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 이제는 참 행복과 평안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신다. 슬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이 모두 삶의 양분이 되어 커다란 나무가 되신 분. 그 분께 삶에 대해 배우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해 왔다.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을 선택해야 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절제해야했고, 눈에 보이는 걸 따르기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에는 늘 갈등이 따르기 때문에 힘이 든다. 머리로만 알지만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조금만 더’라고 하며 현실에 다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본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꿈을 꾸어야겠다. 그분께 배운 대로 크고 멋진 아파트에 고급차 대신, 책으로 가득 찬 서재를 꿈꾼다. TV 대신에 커다란 탁자가 놓인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차 마시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모습을 그려본다. 이제는 결혼식이 아닌 결혼 이후의 삶을 꿈꾼다. 후배부부처럼 서로에게 친구이고, 동료이고, 매니저이고, 스태프가 될 신랑을 만나 들어서 함께 삶을 일구고 가꾸고 꿈꾸어야겠다.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네. 이 글을 쓰게 한 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다. 행복하다.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가슴 벅찰까?

“여보, 오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얘기 해 주세요.” “애들아, 엄마가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희들처럼 정말 사랑스럽구나. 한 번 읽어보지 않으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욱 행복한 상상을 하며 결혼식 아닌 결혼을 꿈꾼다.

격식타파,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착한 결혼”

윤소영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백년가약을 약속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닌, 집안 대 집안 어른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신부는 하객들에게 뒷모습만 보여주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예식이 끝나고 이어 폐백이 이어진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다보면 녹초가 되어 버린다. 생애에서 가장 성스럽고 평생 한번인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결혼식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언가 의미가 있으면서 하객들과 소통하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었다. 따라서 우리만의 결혼식 준비 원칙을 세웠다.

첫째, 허례허식이 많은 결혼식을 타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빛까지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과 함께 품앗이를 하게 되었다. 아는 지인이 일하고 있는 예식장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청첩장은 거래처 사장님이 무료로 제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예식장에서 저렴하게 메이크업, 드레스를 대여해주었으며 결혼식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둘째, 부모님 잔치에 자식들이 출연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 나눔을 통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만드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방송출연 계기로 알게 된 MC의 사회진행으로 시작하여 신부 측 아버지의 축사, 지인들의 축사, 축가, 신부신랑의 다짐, 부모님께 감사의 글 전달, 후원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청첩장에는 화환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화환과 축의금 대신 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분유 보내기” 저금통을 발송하여 결혼식에 참여할 때 수거하는 방식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가 됨을 맹세하는 자리에서 축의금 1% 첫 나눔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셋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의 의미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형식을 다 타파할 수 없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바지 음식이나 예단, 예물은 최대한 간소화 하여 이바지 음식과 예단은 생략하고 서로 결혼반지만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쪽 부모를 설득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배려와 결단으로 할 수 있었다.

격식을 타파하고 착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가 결단력을 갖고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의 배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함께 준비하다면 더 값진 결혼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결혼식도 결코 우

리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함께 바뀌가는 결혼 문화,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는 희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 문화는 이제 그만!!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결혼을 준비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결혼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한 번의 결혼식을 통해 좀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결혼식에서 얻은 교훈을 삼아 태어날 우리 2세에게도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을 살기 위한 길을 인도해주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잘못된 결혼문화를 바로 세우고 격식을 타파하고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착한 결혼식'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21번째 결혼

이은비

어떤 일이든 시작은 가슴 설레는 법이다. 새 학기, 첫 직장, 심지어 새로 산 볼펜을 사용하는 일까지도! 3월 2일,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우리 가족에게는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일 년을 다지는 제 2의 1월 1일이다. 3월 2일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다. 흔히 말하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 엄마 아빠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되던 해의 결혼기념일에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하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 후로 매년 3월 2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이는 ‘가족의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날로 정해졌다. 매년 열리는 결혼에는 늘 그렇듯 하객은 나와 동생 단 두 명이다. 2012년 3월 2일 올해의 결혼 장소는 사진관. 가족사진을 찍기 전에 내가 내민 편지에 엄마, 아빠, 동생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 담아 낼 순 없었지만, 그리고 아직 “진짜 행복하다.”고 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진짜 행복’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알려준 아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려준 엄마,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워준 동생. 나는 영혼의 조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에

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영혼의 조각이 있었다고 한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영혼의 조각이 쪼개져서 여러 사람에게로 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에서 자신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영혼의 조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영혼의 조각이 있다면 나는 가족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는 하나였던 같은 영혼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 같이 만났을 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결혼하고 첫 결혼기념일 날에 아빠가 엄마에게 내걸었던 공약 아닌 공약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주 질문 받는 이상형의 기준이다.

“응? 내 이상형? 음……. 우리 아빠!”

나는 엄마가 고무장갑을 낀 모습보다 아빠가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 더 익숙하고,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보다 아빠가 끓인 김치찌개 맛이 더 익숙하다. 우리 집의 집안일이 100이라면 70은 아빠가 10씩은 엄마, 나, 동생이 분담한다. 이게 아빠가 엄마에게 내걸었던 공약 아닌 공약이었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아빠의 신념이다. 고무장갑을 낀 싱크대 앞에 아빠의 모습은 출근할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빠의 모습은 오래된 나의 이상형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든든한 가장이자 좋은 남편인 훌륭한 나의 아빠! 이렇게 엄마와 아빠 덕에 나 또한 매년 결혼하는 것을 꿈꾼다. 매년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항상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엄마 아빠가 배워주고 물려준 자산이니까!
여러분도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착한 결혼식

이인희

IMF시절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우연히 작은 사랑이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개월의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하던 내가 콩깍지가 씌어도 어쩔……. 정말 그때는 결혼에 목이 너무나 말랐었나 봅니다. 당뇨로 신장투석과 시력까지 상실하신 아버님과 더불어 사고치는 동갑내기 시동생. 기울대로 기울어 버린 가사형편. 정말 남들 모두가 기피하는 최악의 시월드란게 왜 저에게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의 결혼식 날 주위의 친척들이 모두 다 신랑의 스펙에 혀를 모두 차셨지만 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믿음직한 신랑이 마냥 좋았던 철부지 아가씨에 불과했지요.

너무나 가난했던 신랑. 아버님의 병환으로 매달 이삿짐을 싸서 마지막에는 여관에서 생활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대학을 다니며 꿈을 키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대신하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돈을 벌어 오시면 가계부를 써서 불필요한 돈을 미리 차단하고 병원비 내고 최저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없는 외중에도 한푼 두푼 모으는 참으로 바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말하십니다. 방학 때 울산 건설현장 한 달 아르

바이트 의뢰받고 짐을 싸서 친구와 내려갔는데 하루만에 일이 힘들다고 친구는 올라오고 신량은 라면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손에 쥐었던 100만원을 만져보라며 어머니 손에 쥐어 주어 어머니가 평평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루는 철근을 나르다 추락하면서 온 몸에 멍투성이가 되어 들어가서 쉬라는 관리자의 말에도 혹시 일당 안 줄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끝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길 여러 차례라는 말을 들었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신량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란 걸 몰랐지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부모님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불필요한 혼수품 대신 각자의 돈을 모아 쓰러질 듯한 13평 아파트를 구입해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 저를 설득했던 신량. 비슷한 시기에 결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번듯한 아파트로 신혼을 시작하고 몇 백짜리 웨딩 촬영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물 또한 세트로 마련하고 혼수준비 또한 몇 천을 들여 꾸며진 번듯한 살림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친구들이 솔직히 부러웠고 부모님 원망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신량의 뜻대로 예쁜 다이아도 아닌, 멋진 신혼 여행지도 아닌, 화려한 결혼식도 아니었지만 신량의 뜻대로 검소하게 예식을 치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의 고단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저에게 주자마자 가계부 쓰라며 휘

이익~ 노트 하나 던져 주더군요. 그것이 나의 평생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에 기재해서 결재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코드는 왜 꽃혀 있냐, 장 한번 다녀와서 상 한번 차려 놓으면 우리 이렇게 먹다간 거덜 난다, 담부턴 3찬이다……. 그래서 우리 집은 찌개, 김치 반찬 하나가 전부이고요. 지금까지도 신랑의 잔소리는 제 귀에서 떠나질 않는 답니다. 큰 애를 낳고 산후 조리를 하는데 이모가 오셨지요. 목욕탕에서 애기 기저귀를 빨고 있는 신랑을 보고 참으로 신랑 자상하네 하더군요. 사실은 종이 기저귀가 아까워서 연년생인 아가들의 기저귀를 손수 빨아 해결 하더군요.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 생활비가 배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거금을 주고 카메라를 사서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웬일이야. 아이들 예쁜 모습을 담아주려나 보다 했더니 투잡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시다.

카페를 개설하고 의뢰해 오는 알바 돌 스냅 촬영기사를 하기 시작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으면 4탕을 찍고 옵니다. 주말 내내 꿈쩍도 못하고 그때는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 되었지요.

한번은 치루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4만 원짜리 무통 주사비가 아까워 생으로 하얀 밤을 지새우고 하는 말. 담에

는 그냥 맞아야겠다 해서 온가족이 웃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 신랑, 참으로 본인에게만큼은 박한 사람입니다. 그 흔한 팬티, 양말, 신발, 옷, 10년째 입고신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셔랍을 열어보면 사복 보단 회사 티나 바지 등으로만 생활 한답니다. 차는 정말 꼬옥 필요할 때만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로 출퇴근은 물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두부김치에 혹은 부침개에 먹는 막걸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신랑.

만원을 쓰더라도 열 번 넘게 생각해 본다는 신랑……. 돈을 너무 어렵게 벌어서 물 쓰듯 쓰질 못한다는 신랑을 보면서 미움보다는 아련함이 더 묻어나는 12년차 부부입니다.

참! 그렇게 지독하게해서 부자가 되었냐고요? 네, 부자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집 없는 설움에 리어카에 짐을 실어 매번 이사 다녔던 신랑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더군요. 24평 아파트는 물론 옛 그제 미분양 아파트분양 받았어요. 비록 빚을 안고 샀지만 2년 후 좀 더 모아 그 동안 고생한 아이들과 편안한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해 우리 집은 행복 충전중인 절약모드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나의 결혼식을 처량히 보았던 친척들과 친구들……. 저희 부부의 무모한 짠돌이 도전에 끝없는 박수를 보내며 늘 대단하다고들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 결혼이란 모든 걸 갖추고 한다고 해서 행복

한 것도 아니고 좀 적게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서 불행도 아닙니다. 부부가 한곳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회는 종종 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2억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부모님들 허리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합니다. 부모님에게 기대는 캥거루족들에게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 정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저희 부부가 추구했던 착한 결혼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품 없는 결혼식을 위해 예비부부의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남자가 무조건 마련한다가 아니라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단 예물 대신 간소하게 장만하고 대신 집을 함께 장만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무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거주 하는 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계획 하에 돈을 모아 조금씩 전세로 불려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거품기를 쏘옥 빼기 위해 예식비용을 반반씩 걷어 신혼여행, 커플반지, 한복을 맞추고, 살림살이는 친구들과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부탁드렸지요. 굳이 비싼 물품 말고 실용적인 것들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양해도 구했지요. 장롱이랑 가전은 신랑이나 제가 사용했던 걸 가져와 고장 나면 하나씩 새 것으로 바꾸어 살면서 그 재미 또한 아주 솔솔 하더군요. 예단은 생략하고 웨딩촬영은 결혼식장

의 결혼식 사진으로 앨범을 직접 만들고요. 폐백음식은 제일 저렴한 걸로 맞추고 예단 대신 어른들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노라고 인사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네요.

결혼이란? 사랑하는 연인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부가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허례허식에 갇혀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해 아름답게 시작되어야 신혼생활이 빛에 시달리고 허니문 푸어라는 신종어가 탄생할 만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착한 결혼식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만들어 보는 결혼반지, 부부가 함께 걸어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도보 여행. 축의금 대신 쌀로 받아 다시 기부하는 기부 예식 등 커플마다 다양한 개성과 이벤트로 얼마든지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흔 넘은 내가 꿈꾸는 결혼

장미자

옷장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어 펼쳐 보았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다 부모님의 흑백 결혼식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열아홉 살의 어린 신부는 속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작은 들꽃다발 한 묶음 같은 소박한 부케를 들고 수줍게 서 있다.

서른한 살의 늙은 신랑은 사이즈가 한참이나 맞지 않게 커 보이는 까만 양복을 입고, 긴장한 듯 아니 근엄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다.

사진사의 주문에 따라 포즈를 취한 티가 역력하게 나는 어색한 팔짱, 그리고 겨우 얼굴 두어 번 보고 부부의 연을 맺은데 대한 알지 못할 억울함이 약간은 묻어나는 어설픈 미소.

남의 집 식모살이만 죽어라 하다가 난생 처음 입어 본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로 인하여 열아홉 어머니는 그저 철없이 행복해 했겠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해 등신이니 고자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를 단박에 잠재우고 새파란 띠 동갑의 처녀를 마누라로 맞아들인 아버지 또한 마음 가득 당당한

기쁨이 넘쳤겠지.

나는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 위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벌써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체온과 아버지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다.

내 나이 마흔 둘.

친구들은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하여 아이가 둘 셋. 게 중에는 어느덧 큰 아이가 고등학생인 친구도 있고 세 살짜리 늦둥이가 있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미혼이다.

별로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거다, 라고 우겨왔지만 나이 서른 중반이 넘고부터는 자연스레 못 한 것으로 결론이 나 버렸다.

이제는 괜찮은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없고 소개시켜준다고 해봐야 총각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 게다가 애 하나 둘 달린 홀아비나 들이대기 일쑤다.

내가 미쳤다고 남의 새끼 키우기 위해 결혼을 하냐고 목청 높여 자존심 상한 티를 팍팍 내오고는 있지만 현실인 즉 나이 마흔 넘은 노처녀인 내가 그리 따질 형편이나 깎냥이 되느냔 말이지.

형광등이 나가도 갈아 줄 사람 없고, 현관 앞에 부러 놓은 배달시킨 쌀도 주방으로 옮기느라 혼자 킁킁대고, 남편은 뭐 해요? 아이들은 몇이에요? 사람들이 물어 올 때마다 미혼이라고 대답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을

뒤통수로 느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어서 시집을 가야지,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마음 먹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시집도 철모를 때 가야지 때 놓치면 힘들다는 어른들의 말이 진리인 듯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동창인 친구가 집으로 놀러왔다.

친구는 평생 젊게 살 듯 온갖 멋을 부리다가 서른이 훌쩍 넘어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야말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결혼식을 치렀다.

‘말도 마라. 두 번 결혼 하다가는 남아나는 게 없겠다. 혼수며 예물이며 결혼식이며 집이며 완전히 돈 잔치를 했지 뭐니. 내가 갑부 집 외동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나 나나 모아 놓았던 돈이 있길 했나, 죄다 대출받고 빚내서 했더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빚 갚고 있잖아.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결혼은 그저 형편껏 해야지 돈 잔치 하는 거, 두고두고 후회만 되더라고.’

막연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결혼에 대한 꿈을 꾸어 왔다. 또한 어느 정도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야생화 화관을 머리에 쓰고 야생화 부케를 손에 들고 하는 들판 위에서의 결혼식은 현실적으로 아니더라도, 남의 이목을 신경 써서 거기에 충족이

되도록 하는 체면 치레의 형식적 결혼식이 아닌, 평생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한 소중한 이벤트를 할 거라는 생각을 말이다.

미리 주고받는 비싼 다이아몬드 예물 대신 결혼 1주년 때 금가락지를 나눠 끼자는 약속을 하고, 예식비가 수백만 원이 넘는 고급 예식장 대신 허름한 곳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빛나도록 내가 쓴 시와 연애 사진을 사방에 걸어 놓고, 여기 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갖게 내야 하는 하객들의 축의금 대신 커다란 전지 몇 장에 그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아 액자에 넣어 안방에 걸어두고, 먼 나라로 돈을 쓰러 가는 신혼여행보다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가 자주 가던 커피숍이나 카페, 또는 첫 키스를 했던 바다나 강으로 가서 지난 추억을 오롯이 떠올리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하룻밤 둘만의 조용하고 엄숙한 부부기념 파티를 하고 싶다.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결혼식이 결코 내 결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거나 크나 큰 축복은 되지 못할 테니까.

내 결혼식에 쓰일 돈을 아껴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사는 가난한 부부에게 자그마한 감격스런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은 것도 하나의 꿈이다.

언젠가는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결혼을 할 수 있겠지. 그날이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 매달 십만 원씩 결혼 준비 적금 붓는 날이

바로 내일이구나. 벌써 한 6년을 부었으니 지금쯤 얼마나 모
아졌을까.

어머니는 비록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 않
았지만, 아버지는 비록 몸에 딱 맞는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논매고 밭 갈며 큰 탈 없이 잘 살아 오셨다.

조금 더 오래 사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나 적어도 결혼식이 초라하다고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생활까지 초라하지는 않았다.

남보란 듯 주렁주렁 다섯 남매를 연이어 낳으셨고 악착같
이 살림을 꾸려 그래도 배 굶고 속 깊이 앓으며 살지는 않았
으니까.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산마루에 낮 안개가 하얗다. 까치
한 마리가 휘익 시야 앞으로 날아간다.

우리 어머니 하얀 면사포 쓰고 우리 아버지 까만 턱시도
입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황혼의 결혼식을 다시 올리고 있다.

땀땀따다 땀땀따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섬
기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맹세 합니까?

- 네. -

장애인 시부모님을 맞은 누구집 귀한 딸

장은주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딸만 셋 기죽지 않게 하려 부족한 것 없이 정성껏 키우신 내 친정 부모님.

예쁜 옷, 넉넉한 용돈, 맛있는 음식, 친구들조차 가려 만나라시며 그렇게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감싸 돌았던 유년 시절을 지나 어느덧 결혼 적령기 스물여덟.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결혼 상대로 성에 차지 않으셨던 우리 부모님.

연하라 안 되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바람둥이라 안 되고, 동성동본이라 안 되고, 가난해서 안 되고…….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고서야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반항도 해보고, 만나지 말라는 남자에게 굳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그렇게 힘든 이십대를 보내던 어느 날.

오로지 ‘시집 잘 가는 것’ 만이 딸 부잣집 만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 여기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고 선도 보고, 내키지 않는 소개팅도 해보고…….

그런 현실이 싫어 결국 자살기도까지 했던 못난 딸.

병원에 실려 가기를 몇 차례, 더 이상 결혼에 대한 강요는 안하겠다 맹세하셨던 우리 부모님.

때마침 곁에서 지켜보던 직장 동료와 연애를 시작하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2년여 시간을 서로 지켜봐왔던 터라 사람의 됴됨이는 알고 있었고, 내 마음의 상처도 알고 있기에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됐던 결혼 절차.

2010년 봄 즈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이야기가 오갔고, 상견례까지 가는 기간 불과 4달.

상견례 한 달 전 서로의 집 인사차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의 장애.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에, 어머니는 정신지체2급…….

초라한 집에 장애인 부모님, 그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나에게 미안해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사람.

괜찮다고, 가난이, 두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것이 뭐가 죄스럽냐며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 말하고 그렇게 결혼을 굳힌 그해 여름.

상견례 당일까지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첫 대면.

결국 어머니는 숨기듯 모시지 않고,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내외가 대신 자리하신 그곳은…….

내가 처음 시댁을 가 보았을 때의 마음과 같았을 친정 아버지 표정.

소스라치게 놀란 마음을 숨겨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상견례 직전 알게 된 임신 사실로 더 이상 반대 할 수 없

있던 친정 부모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결혼을 하게 된 귀한 딸.

이왕 결심한 결혼 행복하게 잘살라며 빌어준 부모님이거늘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리하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해피엔딩 동화는 현실과 달라 결혼식과 동시에 밀려드는 시댁 친척들의 간섭과 오남매간의 불화…….

결혼만하면 동화 속 공주님처럼 행복할 것만 같았던 철 없었던 나.

정신 차렸을 땐 이미 한가정의 안주인이 되어있는 기막힌 상황.

결혼식 직전 아주버님과 아버님의 금전적 싸움으로 화가 나신 아주버님 내외는 얼굴 한번 본적 없고, 작은 아버님 내외와 고모들 등살에 못 이겨 명절 때는 시골에 오지도 않는 남매들. 그리하여 당연히 가까이 사는 둘째 며느리인 나 혼자 왕고모의 지휘 아래 제사음식을 장만하며, 음식 단속을 못하시는 시어머니 덕에 매번 시댁 방문 때마다 음식재료와 조미료를 사다 날라야하는 웃지 못 할 상황.

맡며느리가 아니나 그 노릇을 해야 하고, 싫어도 웃어야 하며,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상황에 까지 이르자 고작 2년 남짓 결혼생활이 무너지려 위태롭다.

둘쟁이 아기를 위해 참고, 딸자식 고이 키워준 내 친정부모 위해 참고, 사람 좋기 만한, 자기가 세상 최고의 효자라 생각

하는 남편 보며 참고, 며느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내 시어머니 보고 웃어넘기며 참는다.

하루에도 열 두 번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오늘도 그렇게 참는다.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과의 얽힘이라, 하고 나니 왜 다들 비슷한 집안 운운하는지 알 듯도 하다. 그것이 금전적 수준뿐 아니라 가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떤들 본인 스스로가 참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게 결혼인 것 같다. 정석만 밟아 자기 성에 차지 않는 집안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앞으로 인생이 편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항상 순탄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터.

자신이 사랑해서 한 선택의 끝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적어도 나보다 열 번은 더 참고 견뎌봐야 한다고 본다.

2012년 지금,

당신의 시대는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잘난 귀한 집 따님, 본인이 남편 혹은 시대 식구들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도 그 울타리인 가정도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결혼생활 하나 만큼은 구시대적 발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듯.

그것이 내 울타리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래서 행복할 수단 있다면, 누가 봐도 좋은 집안, 엘리트 코스의 스펙 빵빵한 신랑 같은, 겉으로 보이는 허례 허식 따윈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29 2010 10 24

허례허식을 없애는 결혼!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요!

장현숙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남편은 중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서로 알지 못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문모임에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한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와서 결혼 승낙을 받고, 다음에는 제가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드디어 양가의 허락을 모두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 만큼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무렵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바로 양가의 예단을 없애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시어머님의 의견에 동의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에서 오가는 예단비는 물론, 서로에게 격식으로 주는

선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준비했고, 저는 살림을 하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 중 실용적이면서도 저렴한 것을 골라서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정말 허례허식이 없는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어머니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결혼예단이 얼마이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서로 인생을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자는 의미일 뿐인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늘 안타까움이 들곤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결혼을 못한 커플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결혼이 아닌 결혼식을 중요시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올리고 지금은 결혼 8년차, 예쁜 딸을 낳고 열심히 살고 있으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을 할 때 아직까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넣어서 낭비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식을

우리는 예식장에서도 거품이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르고 독특하고, 한번 치러지는 결혼을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달콤한 말로 고객에게 큰 비용을 치루게 하는 예식장도 아직 많은걸 보면, 결혼식이 아닌 결혼은 분명 정착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바뀌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현 시점에서 육아문제도 결혼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맛별이가 많은 요즘에 마음 놓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거나 무엇보다 아이를 맡기는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부부가 서로 도와 가며 아이를 돌보며 서로 이해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가정생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듯 합니다.

저희 신랑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를 잘 돌봐주고 많이 도와 줘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역시 저는 사회생활은 접고 집에서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육아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혼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육아문제까지 누구나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중 몇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감을 많이 하실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모두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며,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며, 허례허식이 없는 행복한 결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기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허례허식이 없는 행복한 결혼이 정착될 때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자식들 까지 대대손손 더욱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저는 우리 딸에게 저처럼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예의를 차리며 결혼을 할 수 있는 행복을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들, 딸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허례허식으로 망치는 일이 없기를 부디 소원해보며 더욱 멋진 앞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로또를 산다

전예중

로또를 산다. 나는 천 원 어치를 사고 그녀는 오천 원 어치를 산다. 시장에서 콩나물 몇 백원 어치를 사듯 로또를 사간다. 봉투도 필요 없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무릎으로 툭툭 쳐가며 담아올 것 없이 네모난 종이를 지갑 뒤편에 접어서 넣는다. 나는 번호를 보지 않는다. 그녀는 다섯줄의 숫자나열을 보며 번호가 몰렸다는니 붙은 번호가 확률이 높다는니 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 번호를 보지 않는다.

유학준비를 한다. 영어 공부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돈이다. 그녀는 돈이 없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아버님이 '너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말했다. 하긴 아버님의 마음도 이해간다. 딸만 넷인 집에서 첫째 딸에게 유학자금까지 대주기에는 막내딸이 너무나 귀여웠을 테니까 말이다. 나도 사실 돈이 없다. 있는데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유학 준비는 로또 사는 것이다.

잘 통한다. 그녀와 나는 친구일 때부터 묘하게 잘 맞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꼭 그녀의 얼굴이 보이곤 했다. 예상치 못

하게 만난 반가움일까? 아니면 서로 감정이 차올라서 그런 것일까? 그녀의 얼굴을 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껴안고 있는 그녀의 냄새와 느껴지는 편안함이다. 누가 먼저였는지, 내가 뛰어갔는지 그녀가 뛰어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는 적어도 뭘 생각은 없었다.

물어보지 않는다.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녀를 내 여자친구 취급한다. 물어보지 않았기에 애써 해명하지도 않는다. 그녀와 내가 잘 어울리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반사하고 있는 곳은 모두 나의 시선이 머문다. 쇼 윈도우든 엘리베이터 안 거울이든 청계천 물이든. 여자친구. 여자인 친구. 성별이 여자인 친구. 그것으로 충분한가? 요즘은 잘 모르겠다.

결혼을 한다. 전혀 여자가 있을 것 같지 않던 친척 형은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한다. 결혼식은 나에게 밥을 많이 먹는 곳일 뿐이다. 차려입을 필요도 없이 아침에 입은 옷 그대로 결혼식에 간다. 자식 같은 봉사자들이 수저 하나하나부터 차려주는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동글동글한 할머니들처럼 입 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밝아진다. 얼마나 맛이 좋으실까? 자식 같은 예쁜 아이들이 일일이 차려주는 밥은. 나도 결혼식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때면 절로 허리가 숙여지고 공손해 진다.

돈을 낸다. 아버지는 돈을 낸다. 내가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고 다니는 동안, 오셔서 바로 돈부터 내신다. 숙련된 공무원이 일 처리하듯, 그 모습은 재바르고 정확하다. 할 일을 마치신 아버지는 여기저기 바쁘게 둘러보시며 식당을 찾으신다. 나는 밥이 맛있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 퍼온 것을 먹으며 다음 접시에는 어떤 것을 담고 될 담지 않을지, 담지 못한 음식의 맛을 상상하며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줄 세우기를 해본다. 아니 치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앞의 흰 접시를 채울 생각을 하는 건 방금 본 결혼식보다는 재미지다.

매번 똑같다. 예쁜 한복차림으로 식당 앞에 서계신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멀뚱거리며 멀찌감치 앉아있으면 결혼식은 제 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들어온다. 신부가 들어올 때는 일어서서 박수를 쳐야한다. 예쁘다고 주문처럼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앞뒤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말해줘야 의미가 있다. 주례사가 끝나면 신랑의 정수리를 구경할 차례다. 사위의 정수리가 그리 슬픈지 신부의 부모님은 항상 우신다. 행진으로 끝나는 결혼식이 내가 어렸을 때 본 동화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본다. 나는 항상 욕심이 과하다.

그녀는 다르다. 아침에 본 화장 안한 그녀와도 다르고, 화

가 안 낫던 어제 점심과도 다르고, 친구로 알던 그녀와도 다르다. 심지어 나와도 다르다. 그녀는 확실하다. 나와는 반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 그녀에게 행복이 뭔지 물어본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이 행복한 상황이나 물건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행복을 정의내릴 것이다. 조목조목 따져가며 재잘대는 그녀의 입술을 멍청하게 바라보면 왠지 그녀에게 복종하고 싶어진다.

결혼을 한다. 결혼식 축의금을 빼돌릴 궁리를 하는 그녀와, 유학하려고 로또를 오천 원 어치씩 사는 그녀와, 조그만 말 한마디에 벌써 고부간의 갈등을 느낀다며 내 어깨를 때리는 그녀와, 자식을 낳았으면 유학자금까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녀와, 키우는 수컷 강아지가 발정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녀와, 자긴 아직 남자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그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좋아해주는 그녀와 결혼을 한다.

결혼은? 결정! 혼자서도 잘해요

최정근

결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나이인 삼십대가 되자 결혼이라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요즘은 결혼의 적령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보통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많은 애기들과 시선들 속에 결혼식이라는 것이 둘만의 날이 아닌 주변 모두의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촬영을 시작으로 예물, 명품가방, 예단, 예식장, 허니문 호화 해외여행까지……. 어느덧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물어보거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 않으면 안될까? 를 생각해보기도 전에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듣게 되는 결혼의 첫 단추. 예전엔 흘러들던 이야기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어느덧 삼십대의 나이가 되며 결혼을 생각하는 지금의 나는 그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는 집을 준비해야하고 여자는 혼수를 그 집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나이

에 과연 집을 준비할 남자가, 좋은 집을 원하는 그 집안에 맞는 혼수를 맘 편히 준비할 여자가, 얼마나 있는 걸까?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받는 현재의 결혼문화에 곧 11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언니도 내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갔다.

내가 낸 결론은 최소화. 간소화.

어차피 지나고 나면 별 일 아닌 일들에 대한 무덤덤.

말이라는 건 물론 듣고 나면 흘러버리기 어렵고 그 상황 때마다 깊게 남아 계속해서 머리와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종목표라면 이 정도는 스스로 넘겨야하는 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날짜도 잡지 않은 내년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일단 무료결혼식지원센터 카페에 가입하여 이벤트와 여러 가지 간소화한 사례들을 확인하며 응모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짜봤다.

그렇게 해서 웨딩촬영은 카페에서 이벤트를 응모해 보통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웨딩촬영을 스·드·메 9관 액자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선 예약해두었고 무료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예식장들을 확인하며 하나씩 준비해나가고 있다.

주변에서는 무슨 벌써 날짜도 안 잡은 상황에서 웨딩촬영을 예약 하나면서 말들이 많았지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카페와 연계되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곳이라는 정보와 상담까지 다 하고 준비해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예물 또한 미리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과 커플링만 서로 꼭 끼고 다닐 수 있는 화려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약속했다. 서로에게만 충분하면 되는 일들을 남들의 시선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 현실은 서로에게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누구나 풍족하게 여유 있게 좋은 환경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닌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시작해서 무리하게 돈에 시달리고 그 일로 서로 싸우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져 이혼이나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상태에서 과연 인생의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결혼을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티격태격 싸우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잘 맞춰보라는 이야기나 이렇게 결혼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아직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결혼할 때 아니면 그런 거 못

받고 못 누린다고 대본에 써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이야기한다.

물론 다행히도 100%가 아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부부들도 있다.

소수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내 생각 그대로 나와 함께할 사람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행복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응원해주는 소박하지만 훈훈한 결혼식!

비싼 예물, 예단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함께 하나씩 준비하며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고 고마워 할 수 있는 감사 일상 서프라이즈 환경 준비!

엄청나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지만 함께 먹고 자고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둘만의 작은 공간!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방이 필요할 때가 되기 전까지 둘이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힘들지만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을 우리 집 만들기 프로젝트!

신혼이라 초기에는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에 지금껏 귀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들께 함께 살고 용돈도 드리는 평등 효도 약속!

이렇듯 나는 결혼이라는 부담감을 하나씩 벗어던지면 결

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서 결혼을 하고 싶고 준비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나로 달라지고 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불행은 내 생각에서 시작되는 일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내 자신을 보며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꿈꾼다.

내년에 행복하게 결혼해 행복한 일상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나는 결혼에 대한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채워나가고 있다.

미리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다.

결혼하는 순간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꿈꾸는 상대와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그에 맞게 준비하며 알아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예비신부와 예비신랑들이 싸우고 울고 웃으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혼여행의 비행기에 타고 내리는 순간 그 짐의 크기에 놀리고 걱정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한다. 난 그게 싫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생각을 했다.

좁지만 무난한 길을 선택했고 둘이 꼭 차고 조금은 비좁게 걸어 가야하지만 함께 하기에 괜찮고 조금은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전까지 결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말만 듣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잠시 흘려두는 센스를 발휘할 예정이다.

작은 컵이나 수건부터 크게는 전자제품까지!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위해 이벤트나 행사에 1년 동안 열심히 눈을 돌려 허례허식 타파에 한 줄을 긋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라는 말에 귀를 닫고 혼수를 줄이고 집을 구하는데 그 돈을 함께 모아 양성평등에 조금은 이바지하며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나 자신 스스로가 바뀌어야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나의 결혼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서 최고의 결혼인 것이다.

결혼을 결정한 나는 혼자서도 잘하는 예비신부이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결혼식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는 첫 단추인 결혼을 위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글을 써본다.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 수기집

발간일 / 2012년 11월 27일

발간처 / 한국YWCA연합회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3

전화 / 02-774-9702~7

팩스 / 02-774-9724

홈페이지 / www.ywca.or.kr

©한국YWCA연합회, 2012

* 책 내용 일부를 사용하려면 저자나 한국YWCA연합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